

印刷媒體를 통한 科學技術風土造成

高麗大學校 教授 金 貞 欽

1. 情報媒體와 文化

Marshall MacLuhan에 따르면 人類의 歷史는 情報媒體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表 1〉

文化社會의名稱	情報의 主媒體	受 信 器 官	情 報 的 性 格	長 短 點	參 考
文字以前の社會 (先史時代)	音 聲	聽 覺 및 (共他の 4官)	觸角의多樣性		
文字 文化	Handwritten 文 字	視 覺	視 覺 重 視 多 樣 性		
活 字 文化	活 字	視 覺	視 覺 中 心 劃 一 의 反 覆 또는 再 現 性	劃 一 性, 秩 序 論 理 的, 科 學 的, 保 存 性, 分 類 性, 單 價 值 觀	Digital
電子媒體時代 (現 代)	電 子 媒 體 (Radio, 電話 TV)	모든感覺器 官의 總動員	觸覺的(Tactile) 모든 5官 總 動員	原始的, 衝動 的, 非論理性 多次元, 多價 值觀	Analog

文字發明 以前の 社會에 있어서는 人間은 觸覺的(tactile)이었고 多樣하였다. 이 時代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은 主로 音聲에 依한 것이었고 여기에 몸짓, 손짓, 얼굴의 變化등의 所謂 Bodily language 등이 補助役割을 하였었다.

文字의 發明以來 人間을 視覺에 重點을 두는 Communication system을 發展시켰다. 그러나 文字는 그 文字를 쓰는(writing) 사람에 따라 各人各樣하였고, 千差萬差하였으므로 多樣성은 계속 維持되어 있었다.

金屬活字가 發見되고 곧 이어 金屬活字를 利用하는 새로운 印刷術이 發明되자 人間은 視覺

中心의 Communication system에 「劃一性」을 追加하였다. 왜냐하면 活字에 依해 印刷된 글은 그 活字를 누가 使用했건간에 同一한 劃一의 文字가 찍혀 나오기 때문이다. 또 活字는 劃一性 뿐만 아니라 뚜렷한 識別性과 分類性, 그리고 數 많은 正確한 複製가 可能한 까닭에 再現性과 反覆性이 保障되어 科學을 낳게 하였다. Copernicus, Galileo, Newton등에 依해 이루어진 近代科學이 活字文明과 때를 같이 한것은 偶然的 所産은 아니고 活字의 이와같은 性格에 起因했다고도 볼 수 있다. 「되풀이가 科學을 낳았다」라는 MacLuhan의 말과 같이 누가 보아도

恒常 同一한 結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科學의
으로 올바른 것으로 看做되었던 것이다.

活字文明의 또 그 識別성과 分類性 등에 依해
論理性을 發展시켰고, 善과 惡, 大와 小, 長과
幼等 秩序와 序列에 基盤을 둔 單價值的 世界
觀을 形成하였다. 따라서 活字文明에 依해 教育
을 받은 活字人間은 論理的 思考方式을 갖는 人
間이며 秩序와 序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볼수
도 있다.

또 活字文明은 「劃一製品의 大量生産」을 至上
目標로 했던 近代工業化 社會의 基本原理를 提
供하기도 하였다. 20世紀 前半에 이르기까지의
工業社會는 活字文明의 産物이었던 것이다.

그러던中 1930年을 前後해서 電子媒體가 登場
하게 되었다. 電話가 發明되었고(電話는 1對 1
Communication system), 라디오가 發明되었
다. 값싼 라디오가 製作되어 라디오放送이 始作
되고 普及化되기 시작한 1920年代 부터 人類는
電子 media時代에 突入하였다. 그후 곧 이어
TV가 完成되어 1936年에 最初の TV放送이 英
國에서 放送되었다. 1950年代에 들어와 TV는
美國에서는 1家口 1臺程度로 까지 普及되었고,
日本서는 1960年代에, 韓國에서는 아마도 1970
年代末에 1家口 1臺 普及이 이루어지리라 豫想
된다.

電子 미디어, 그 中에서도 특히 T.V.의 登場
은 文化의 樣相을 完全히 뒤엎어 놓고 있다. 活
字媒體가 그 劃一性에 依해 單價值的인 論理的
世界를 엮어나갈때 電子 media는 그 多樣성과
不連續性 및 多次元적이고 多價值的인 情報의 內
容을 展開해 나간다. 例컨대 「꽃」이란 文字를타
이프라이터로 쳐서 찍은 文字는 누가 보아도,
그리고 누가 그 타이프라이터의 키를 눌렀든 간
에 꼭 같은 「꽃」이라는 文字가 된다. 그런데 TV
에서는 「꽃」이라 말할때 音聲外에 그 音聲을 내
는 사람의 생김새 男子나 女子나, 웃는낫이나,
우는낫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等等의 要素가 作
用하고, 게다가 그 背景은 花園이나, 감감한 暗
幕이나, 「꽃」이라 말하는 사람옆에 강아지가 있
었나 없었나 등등 背景의 明暗, 景致·遠近·色
깔 등등 여러가지 要素가 加味되어 感覺이 總動

員되다 시피 된다. MacLuhan은 이것을 觸覺的
(tactile)이라 부르고 있다. 即 觸覺的이란 原始
人들과 같이 모든 感覺器官을 總動員해서 느낀
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TV媒體下에서 자란 所謂 TV人間,
觸覺人間들은 로큰롤의 노래를 귀로만 듣는 것
이 아니라 엉덩이나 몸全體를 흔들면서 듣고,
손뼉을 치며 感激에 넘치게되면 발까지 동동 굴
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다.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舞臺에 뛰어나가 歌手를 끌어 안고 같
이 노래 부른다. 이것이 觸覺人間들의 노래를 듣
는 方法이다. 따라서 절감게 앉아서 귀로만 노
래를 들어야 했고, 또 그렇게 듣는 다고 에티켓
을 배운 論理性이 強한 活字人間 들과는 달리
TV人間은 5個의 感覺器官을 全部 뒤섞어 가면서
받아들이는 關係로 原始人들과 같이 論理性
이 稀薄해지고, 序列이나 秩序의 概念이 弱화되
고 價值的 多樣性을 갖게 된다.

그 結果 身分의 上下의 序列을 混亂시키는 言
動을 하여 年輩者나 上司의 憤怒를 사게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親舊처럼 取扱해서 父母들
을 슬프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要컨대 觸覺時代란
絶對的 價値가 喪失되고, 未整理된 흩어진 토막
의 狀態로 여러가지 事物이 共存하는 結果 各人
各樣 皮膚로 느끼는 여러가지 價値觀과 多樣性
있는 생각을 갖게되는 時代라 할 수 있다. 따라서
TV媒體下에서 教育받은 TV人間에게는 劃
一化된 統一性을 찾기가 매우 힘들게 되는 것이
다.

2. 情報媒體와 教育機關

情報媒體의 變革은 文化의 패턴을 바꾸는 同
時에 教育機關 및 教育內容이나 方式에도 變革
을 가져왔다.

文字가 없었던 音聲時代에는 教育의 場은 家
庭 및 部族內서의 教育이었고, 父母, 親父母*
兄弟 또는 部族의 長老가 教師였다.

文字가 發見되자 教會가 教育의 主役을 맡게
되었고, 牧師가 教師의 役을 兼했다. 活字文明
期에 들어오자 學校教育이 시작되었고, 教師라

<表 2>

文化社會의名稱	主된情報媒體	主된教育의場	主된教育者	備 考
文字以前의 先史時代	音 聲	家 庭 및 部 族 行 事	父 母, 親 父 母 部 族 的 長 老	
文學文化	handwritten 文 學	教 會	牧 師	
活字文化	活 字	學 校	教 師 專 門 職	家庭教育도 있기는 있으나 主된 教育機關은 各級學校
電子媒體時代 USA 1950以後 韓 國 1977以後	電子媒體 (특히 TV)	T V (學校는補助的)	talent(?)	學校는 없어지지는 않으나 教育에 關한 限 補助的 役割에 머문다.

는 專門職이 새로 생겼다. 그렇다면 라디오나 TV가 情報의 主媒體가 되어 있는 電子 미디어 時代에서는 教育의 主體는 무엇일까? 明白히 主體는 學校에서 TV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日本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하지만, 學校에서 教師가 아무리 「食糧은 몸에 좋으니 食糧을 많이 먹읍시다」라고 가르쳤으나 學生들은 통 듣지를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有名한 人氣 TV텔레프가 「食糧은 몸에 좋으니 자 다 같이 食糧을 사 먹읍시다」 한마디 하자 그날 저녁으로 日本全國의 食品店이라는 食品店에서는 食糧이 賣盡되어 기쁜 悲鳴을 울렸다고 한다. TV의 힘은 이처럼 무섭고, 教育에 미치는 影響은 이렇게 컸던 것이다.

勿論 그렇다고 電子媒體 時代에는 教育은 TV만이 하고 學校는 必要없다는 뜻은 絕對 아니다. 그 옛날 音聲時代인 文學以前의 社會에서 文學社會로 옮겨갈때 教育의 主體가 家庭에서 教會로 옮겨가고, 文字時代에서 活字時代로 옮겨갈때 教育의 主體가 教會에서 學校로 옮겨가는 하였으나 「家庭教育」은 여전히 文字時代나 活字時代에도 存在하였던 것이다. 단지 家庭教育은 主體가 아니고 補助的 役割을 하는데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TV時代인 現代에 와서는 學校는 電子미디어, 또는 좀더 옮겨는 情報媒體에 教育

의 主體를 讓步해가고 있다. 그렇다고 學校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家庭이나 教會와 마찬가지로 이제 學校마저도 補助的 教育機關으로 옮겨간다는 뜻이다.

3. 主役에서 물러나가는 學校

心理學者들에 依하던 現代처럼 눈부시게 모든 것이 加速度的으로 變遷해가는 社會에 있어서는 情報量도 엄청난 量이 每年 追加되어 每年 平均 5%정도의 새 知識이 追加되고 5%程度의 知識은 죽은 知識으로서 忘却되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現在 갖고있는 情報나 知識의 50%는 完全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50%의 知識은 없었던 것이 새로 創造되어 追加되게 되는셈이다. 10년이던 江山이 變한다고들 하나 10년이던 知識이 半減하는 셈이다. 따라서 今年에 大學이나 中學 또는 國民學校를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 새 知識을 供給하지 않는다면 10年後에는 學校에서 배운 知識의 半은 남아빠져 쓸모가 없는 죽은 知識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옛날에는 學校에서 배운 知識의 90% 이상이 一生 살아나가는 동안 變함없는 眞理였고, 또 그 知識만으로 一生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不便도 없었다. 이런 까닭에 옛날에는 學校當局이나 教師에게는 權威가 뒤따랐다. 왜냐하던 學生들은 退學을 當할때 一生을 살아나가는

活字媒體 · 電子媒體 長短點

데 必要한 知識의 90%를 同時에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現代에와서 敎師나 學校當局의 權威가떨어진것 처럼 보이는 것은 學校當局이나 敎師가 옛날보다 못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學校나 敎師의 役割의 相當한 部分을 情報媒體 좀더 具體的으로서는 매스 미디어가 擔當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科學技術의 風土造成, 科學의 生活化, 科學의 大衆化, 科學의 啓蒙이나 大衆의 普及化에 있어서도 매스 미디어의 役割은 學校만큼이나, 또는 어쩌면(TV時代인 現代에서는) 學校以上으로 重要해진다.

4. 活字媒體 · 電子媒體의 長短點

心理學者의 調査에 依하면 사람의 5官을 통해 들어오는 外部情報의 80% 이상은 視覺이, 約 10%는 聽覺이 擔當한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過去의 敎育에서는 經驗이나 行動보다는 聽覺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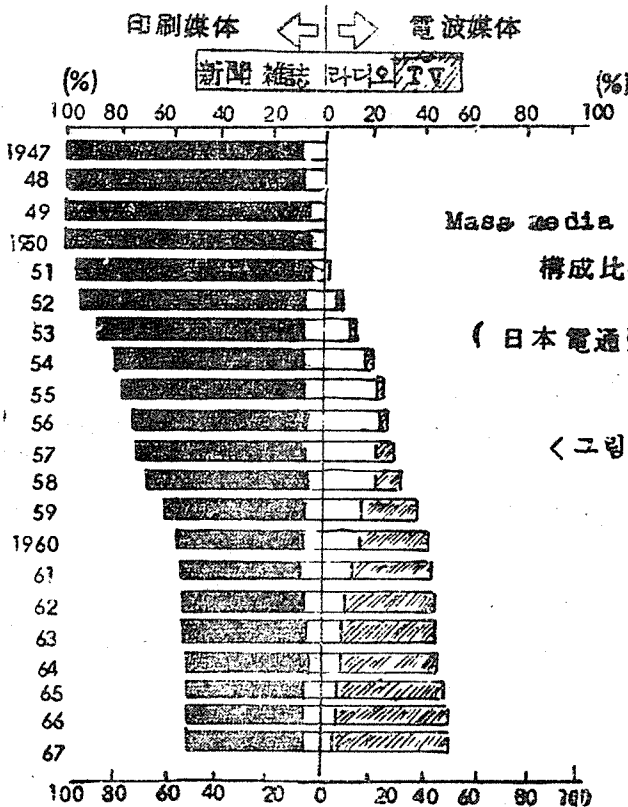
聽覺보다는 視覺에 重點이 두어졌다. 그러나 學校 敎育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敎科書나 敎授의 敎本이었고, 다음이 그 補助的 役割로서의 音聲을 통한 講義였다. 視覺에 重點을 둔 敎育의 習慣化로 學生들은 聽覺을 一部 輕視까지 하는 傾向마저 있다. 即 敎授가 아무리 熱心히 口로 說明해 보았었다 敎授의 이야기中에서 重要한 部分을 골라서 노트에 적는 學生은 極히 드문것이 오늘날의 大部分의 學校에서의 現況이기도 하다 即 敎授가 講義할때 學生들은 敎授가 칠판에 쓴 글자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결과 모든 學生들의 노트는 거의 完全한 製品들이 되어있다. 이것은 視覺을 重要視해온 옛날 敎育의 한 遺産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TV가 發達된 오늘이기는 하지만 視覺을 통한 情報의 受信은 敎育에 關한 限 아직도 重要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TV에 依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發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매스 미디어에서 차지하는 印刷媒體의 率은 決코

過小 評價해서는 안된다. <그림 1>의 막대 그래프는 日本에서의 1947年에서 1967年까지의 21年間의 統計인데 매스 미디어에서 차지하는 各種 미디어의 構成成分이 나타나 있다.

이것을 보면 1951年에 시작된 電子媒體(電波媒體)는 漸次 그 몫이 增加하여 1962年頃에는 46%로까지 늘어났고, 1967年에는 約 50%로 늘고 있으나 1962년부터는 그 增加率이 鈍化되어 印刷媒體와 電波媒體가 매스 미디어를 5等分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그래프의 趨勢로 보아 1977年의 現在에 와서도 이 構成은 큰 變化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또 GNP(1人當), 貿易輸出 高等 여러 面으로 보아 韓國의 現代와 10年前의 日本은 비슷할것이 豫想되며 TV普及率은



<그림 1>

當時의 日本이 現 韓國보다 若干 앞서 있다는 것을 勘案할때 이 그래프는 韓國의 現實과도 거의 符合된다고 생각된다.

즉 TV時代라고는 하지만 매스 미디어에서의 印刷媒體의 몫은 아직도 半을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할때 科學振興을 위한 印刷媒體의 役割은 TV의 出現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重要하다.

그뿐만 아니라 科學普及을 위해서는 印刷媒體 쪽이 電波媒體쪽보다 優秀한 몇가지 長點이 있다. 그것은

(1) 內容의 濃縮化

印刷媒體는 出版까지 時間이 걸리는 短點은 있으나 推敲가 可能하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題目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몇차례나 案을 가다듬어 內容을 짧은 글속에 壓縮시킬 수가 있다.

(2) 論理性

活字媒體는 電子媒體에 比해서 훨씬 論理性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文1節에서 말한바와 같다. 科學은 가장 論理性을 要求하는만큼 科學의 內容이나 方法의 傳達에는 活字媒體가 電子媒體보다는 有利한 立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容易한 分類·保存·再現性

活字媒體는 잘 分類해서 保管만 해둔다면 언제나 必要할 때 다시 再現시킬 수가 있다. 電子 미디어쪽도 分類 保管 再現이 可能은 하나 一般的으로 必要한 部分만의 分類와 再現에는 時間과 돈이 必要하며 또 設備도 若干 高額이다. 活字媒體의 保管은 必要한 部分을 찌르거나 recopy해서 카드나 종이에 添付하여 언제나 쉽게 保管되고 分類도 可能하고 또 일단 꼬집어낸 資料는 몇번이고 瞬間적으로 읽거나 볼 수가 있으나 電子 미디어쪽은 파일에서 찾아낸 Video나 Tape를 눈앞에 두고도 中の 어느 一部는 再生시키는데는 餘分の 努力과 時間이 걸린다. 또 두번 再現하려면 두번, 3번 再現하려면 3번이나 recorder를 처음부터(또는 大略의 位置를 나타내는 Winding Number를 알면 그 部分까지 돌린후) 듣거나 보아야 한다. 따라서 科學에 關한 記事에 關해서는 印刷媒體가 有利한듯 하다.

(4) 單價值的 單純性

活字媒體를 1次元의 이라면 電子媒體는 多次元的 이라 할 수 있겠다. 多次元的인 電子媒體는 華麗하고 여러가지 要素가 많이 包含되어 있는 대신 그것을 受信하는 사람쪽에서는 너무도 情報가 多様하여 必要한 敎訓을 찾아내기가 힘들게 된다. 예컨대 아름다운 색깔로 變해가는 비누거품의 實驗을 教育 TV로 放送한다 할때 學生들 中에는, 「아 저 先生 멋진 벡타이를 하고 있구나」라든가 「저 先生이 낀 眼鏡은 最新型 獨逸製로구나」등 엉뚱한데 感嘆하는 경우마저 있다 한다. 그러니 科學知識을 普及하는 實驗에서는 차라리 天然色보다는 黑白이 나은 경우조차 있다 한다. (但 비누거품實驗에서는 天然色이 必要)

이런 까닭에 深刻한 內容을 담은 映畫에서는 일부러 天然色을 避해서 黑白 映畫로 찍은 경우조차 있다. 예컨대 「Water Front」라든가 Al Capone의 映畫는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即 무엇인가를 強調하고 싶을때는 일부러 다른 要素는 모두 犧牲시켜 그 要素만을 클로즈업시키는 手法을 쓰는데 科學의 여러 法則도 사실은 이와같은 單純化·理想化에 의해서 發見된 것이 많다.

이런 관계로 活字媒體를 쓰는 情報傳達中에는 電波媒體로라면 너무도 多様해서 本末을 顛倒할 危險性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論理整然하게 必要한 部分을 強調해서 傳達할 수가 있겠다.

5. 情報過剩時代를 살아가는 法

情報化時代의 到來에 따라 情報가 너무 많은 것은 나쁘지 않는가, 즉 情報에는 어떤 適正規模가 있어 그 以上은 情報汚染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亦是 情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法이다.

그렇다면 現在 이야기 꺼리가 되어 있는 情報汚染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情報處理技能이 多情報에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서 情報處理能力이 高度化되는데 따라 解決이될 問題라 생각된다.

本來가 情報란 恒常 情報를 받아 들이는 쪽에

서 마음대로 選擇할 수 있다는데 그 價値가 있는 法이다. 情報을 받아 들이는 쪽에 對해서 아무런 選擇의 對象도 될수 없다면 그 情報은 情報로서의 價値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여기에 100個의 情報이 있다 하자. 그 100個의 情報中 어느 한 情報이 그 사람에게 價値있는 情報로서 選擇되었다 할때 그런 경우 나머지 99의 情報은 그 사람에게는 不必要한 情報이 될 셈이다.

그러나 이때 나머지 99個의 情報을 單純히 不必要한 情報, 쓸모없는 情報라 해서 내버리는것은 絶對로 옳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對해 必要한 情報은 100個中에 단 하나였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단 하나만의 情報에 接해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사람에게 對해서 가장 効率的이고, 不必要한 點이 하나도 없고 가장 바람직한 情報이 처음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가장 理想的이었다고 말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으로 充分히 滿足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사람에 對해 가장 바람직한 情報이 提供되었는데도 不拘하고 自己自身은 하나도 그렇게는 생각치 않고 좀더좋은 情報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疑心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까닭없는 慾求不滿에 가득차 있을지도 모른다. 卽 사람이 스스로 滿足感을 얻으려면 여러 주어진 情報속에서 自己가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選擇하는 行爲가 아무래도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앞의 例에서 작다면 100個의 情報中 나머지 99個가 모두 不必要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不必要해 보이는 情報덕택에 그 사람은 滿足感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滿足感을 提供키 위한 이 99個의 情報은 絶對로 不必要한 情報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100의 情報보다는 1,000의 情報, 1,000의 情報보다는 10,000의 情報, 10,000의 情報보다는 億의 情報, 卽 情報의 數가 많을수록 그 結果로서 얻어지는 滿足의 度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뜻에서 情報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또 그런 뜻에서 科學技術에 關한 情報은 많을수록 좋고 可能한 限 많은 紙面을 얻어 科學記事를 실어야 한다.

6. 活字媒體를 爲한 科學技術의 啓蒙과 普及

그렇다면 科學技術振興을 위해서는 어떤 方法으로 活字媒體를 利用할 것인가? 活字媒體가 갖는 論理性, 正確性, 高密度性, 分類性, 保管性, 再現性등을 考慮할 때 活字媒體에 依한 啓蒙은 電子媒體보다는 더 重要한 뜻을 갖게 된다. 그런 까닭에 나로서는 專門家가 아닌 一般大衆의 한사람으로서 머리에 떠오르는 몇가지 方案을 그려보기로 하겠다.

(1) 新聞 media

印刷媒體中에서 90%(<그림 1> 參照, 印刷媒體 약 50%中 45% 以上の 新聞 media)를 차지하는 新聞에 가장 重要한 웨이트를 붙여야 한다.

1週 1回씩 固定科學欄을 갖는 某某新聞社처럼 모든 全國紙(日刊紙) 및 地方紙(日刊紙)에 科學欄을 設定하기를 希望한다. 이 科學欄은 最近에 發見 또는 發展된 科學에 關한 記事에 割愛되어야 한다.

固定科學欄外도 海外科學 토크欄을 各新聞의 고정欄과 平行해서 設定했으면 하다. 韓國처럼 1面의 紙面 밖에 못갖는 나라에서 無理가 아닌가 생각되나 이欄은 300字 前後면 充分하다. 그러나 新聞紙上에서 차지하는 넓이는 $3\text{cm} \times 6.5\text{cm} \approx 20\text{cm}^2$ 에 不過하다. 한나라가 科學時代를 맞이할 때는 新聞도 그에 따라야 될 것이다. 또 아는 이에게는 當然하지만 一般人에게는 意外로 느끼는 것에 經濟紙가 있다. 經濟紙에는 意外로 많은 科學記事의 스페이스가 주어 진다.

유감스럽게도 讀者의 數가 적어 玉에 티일 뿐이다. 數많은 經濟紙가 統合을 해서 部數를 늘릴 수 있다면, 그리고 一般人을 讀者로 끌어 들일 수만 있다면 科學啓蒙을 위한, 한 間接的인 方法이 되겠다. 또 新聞小說에 空想科學小說이 侵入해 들어갈 可能性은 없을까? 그리고 科學

慢畫가 一般紙에 固定欄 또는 最小限 週末版에 들어갈 可能性도 開拓해 볼직 하다.

끝으로 現在의 8面の 新聞面에 追加해서 土曜版(夕刊) 또는 日曜版(朝刊)에 4面 정도의 綜合리뷰版을 싣고, 其中의 半페이지를 科學技術에 割愛해서 科學技術에 關한 다이제스트版을 싣으면 한다.

(2) 雜 誌

正規 科學系雜誌가 數個밖에 없다는 것은 可憂스러운 일이다. 1人當 GNP \$ 698(1976年度), 輸出高 78億弗의 나라로서는 매우 羞耻한 일이다. 科學에 關한 月刊誌가 좀더 많이 나와 數 10萬部나 팔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情報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다. 質이 좋은 科學 月刊誌를 育成하기 위해 全國各級學校(國民校, 中學校, 高校)에서 中央圖書館에 1部, 各班圖書部에 1卷씩만 살것을 勸誘만 한다면 科學啓蒙을 위해서는 크나큰 힘이 될 것이다.

또 科學 다이제스트誌가 나오기를 希望한다. 心理學者들에 의하면 사람이 단숨에 雜念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글의 길이는 800字정도라 한다.

글 뿐만 아니라 主禮辭, 祝辭 等等의 스피취의 理想은 3分間이라 하는데 3分間의 스피취는 原稿紙로 따져 約 4枚 即 800字 정도이다. 그러나 이만한 길이속에 科學記事를 濃縮시켜 여러 가지의 읽을거리를 提供한다면 科學版 日刊誌는 事業으로서도 可能하지 않을까?

(3) 科學漫畫

不連續性, 衝動性등의 性格으로는 電子 미디어와 같은 카테고리에 屬할지도 모를 漫畫에 科學을 導入할 길도 모색해 볼만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漫畫家의 科學化가 必要할지도 모르나 밀져야 本錢이니 努力해 볼만하지 않을까? 先進國에서는 科學漫畫가 人氣種目中的 하나이다.

(4) 單行本

電波科學社를 爲始해서 數個出版社가 科學에 關한 포키트 文庫版을 내는데 感銘을 받고 있는 사람중 하나이다. 그리고 最近에 와서는 文庫版이 決코 밀지는 장사가 아니란것이 드러나게 되어 科學韓國의 앞날을 크게 밝게 해주고 있다. 좀더 많은 出版社가 科學文庫出刊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避暑는 역시 以熱治熱

英國에서 發行되는 科學雜誌 "New Scientist"에 掲載된 最近의 科學 및 醫學研究 뉴우스의 첫 記事에 이러한 것이 있다.

런던에 있는 臨床研究 Center에 勤務하는 세 研究員들은 昨年 여름 더운 날씨에 몸을 시키는데 시원한 물이 좋은지 뜨거운 차가 좋은지 하는 해묵은 論爭을 解決하기 위한 한 實驗을 하였다.

赤外線 測定器를 使用하여 여름과 같이 찬 飲料水와 따뜻한 紅茶를 마신 被實驗者의 皮

膚溫度를 測定한 結果 治熱에는 뜨거운 紅茶가 단연 優세함이 나타났다.

實驗結果에 따르면 冷水는 단지 口부분만 冷却시키는데 그쳤지만 紅茶는 마신후 9분이 지나자 皮膚의 溫度를 全體的으로 1~2度나 떨어뜨렸다. 그리고 15分 후 體溫은 서서히 正常으로 되돌아왔는데 "New Scientist"誌에 의하면 被實驗者는 시원하고 상쾌하고 乾燥感을 계속 느낀다고 한다.